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

박형숙¹ · 배영실² · 이성화² · 유수정² · 전소영²

부산대학교 간호대학¹,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원²

Life's Experiences of Middle-aged Divorced Women with Higher Education and Profession

Park, Hyeong-Sook¹ · Bae, Young-Sil² · Lee, Sung-Hwa² · Yu, Su-Jeong² · Jeon, So-Young²

¹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²Graduate School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Korea

Purpose: Today, an increasing number of divorce is shifting family forms and gender role practices.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was to understand life's experiences of middle-aged divorced women with higher education and profession lives in Korea. **Methods:** For this study, 6 middle-aged divorced women with similar backgrounds were recruited from December 2013 to June 2014, using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Results:** Individual interviews revealed the following 15 meaning of themes and 5 themes. 1) A woman considering herself to be ashamed that she has not lived an ordinary life. 2) The destiny of a woman not having a fortune. 3) An exhilarated mood like a teenage girl's 4) Suppressing an instinctive desire of sex. 5) Being a mother as a woman head of household.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deep understanding of middle-aged divorced women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and professional lives of women who experienced difficult times and overcame their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nursing strategies for enhancing quality of life need to be created and implemented for all professional women by Korean community networking gradually.

Key Words: Divorce, Middle aged, Women, Lif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눈부신 경제 사회의 발달로 인한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정치, 경제, 법 등 다양한 공공의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진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유교적 가치관의 잔재는 여전히 여성 본인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전반

적인 사회인식이 이혼여성으로 하여금 숙명적인 피해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2,3]. 고학력 전문직의 중년여성이라 할지라도 이혼여성은 결혼이라는 제도 밖의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높아 사회의 부정적 시선에 따른 감정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4,5]. 한국 중년여성의 이혼은 전체 이혼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혼이 급증하는 오늘날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6]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 이혼율은 47%

주요어: 중년, 여성, 이혼, 삶

Corresponding author: Bae, Young-Sil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 602-739, Korea.
Tel: +82-51-510-8359, Fax: +82-55-387-8307, E-mail: youngsilb@hotmail.com

Received: Dec 4, 2015 / Revised: Feb 11, 2016 / Accepted: Feb 17,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로 2012년에 비해 0.9% 증가하였고, 평균 이혼 연령이 중년기 남성의 경우엔 46.2세, 여성은 42.4세로 이혼 1위인 미국의 이혼율 51%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7,8], 이는 우리나라 중년기 이혼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중년기는 인생의 황금기로 왕성한 신체활동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시기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회의, 정체성의 혼돈 및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여 제2의 사춘기로 정의된다[9]. 중년 여성은 중년남성에 비해 무기력, 좌절감, 젊음 및 외모 상실 등의 위기상황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고[3], 중년기에 이혼을 할 경우, 심한 우울증 및 충동적인 자살과 같은 사회문제[10]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 일상생활, 역할 등의 변화에 대한 위기와 동시에 중년기 발달과제로서의 위기를 이중으로 경험할 수 있어[11] 중년기 여성의 이혼과 관련된 문제들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이혼을 경험한 고학력 전문직의 중년여성의 경우엔 재취업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부터의 수치심과 죄책감, 자녀양육의 과중한 역할 수행, 발달시기에 따른 중년기 위기 등 신체적, 정신적 혼란으로부터 더욱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수 있고, 재취업에 있어서도 자신의 가치가 높아 단순 생산직 또는 서비스직에 종사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2].

이혼 중년여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는 대상자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7], 가정폭력과 관련된 체험현상 연구[3]와 국외는 자녀 및 의사소통 문제와 관련된 연구[13], 약물중독 및 자살문제와 관련된 연구[14]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없는 비전문직의 중년여성에 국한된 연구로 사회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이혼 중년여성이 겪게 되는 변화된 삶의 생생한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고학력 중년여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연구[12]가 있었고,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상학적 연구는 대상자가 겪은 체험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질적 연구 전략으로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에 대한 경험을 이들의 관점에서 확인 및 기술하고, 본질적 의미와 맥락을 규명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이다[15].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내적 경험의 본질과 변화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혼 후

변화된 삶을 어떻게 경험하며 극복하고 있는지를 이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모든 경험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탐구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생활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모습을 그대로 밝히고자 하는 질적 연구방법인 Giorgi[16]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의 본질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을 현상학적 접근으로 밝히고 서술하여 그 의미의 본질을 알아가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고학력 전문직의 중년여성으로 이혼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참여자였고, 이혼여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참여자 선정에 한계가 있었다. 첫 참여자는 한부모 가족 소모임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경험한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을 소개받았고, 소개받은 연구참여자자는 또 다른 새로운 연구참여자자를 소개받는 방법의 목적적 표본추출법의 하나인 눈덩이표본추출법(snowball sampling)을 주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참여자자가 6명으로 다소 적은 수이었으나 Morse[17]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 가능한 참여자 수가 6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P대학교 병원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서 승인(IRB NO. E-2013097)을 받았다. 면담에 앞서 연구참여자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참여자자의 익명성 및 정보의 비밀 보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자가 면담

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 후 참여자로부터 직접 서면화된 사전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참여자들의 편의에 맞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면담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과정 및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면담을 녹음하였다. 사후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필사 시 참여자의 이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숫자로 표시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자료의 기밀유지를 위해 최대 5년 동안 연구자가 참여자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 뒤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고, 연구결과에 대해선 학술발표 및 간호학과 관련된 학회지에 출판될 것임을 알려주었다. 면담이 끝난 후 소정의 선물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4개월간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은 반구조적 개인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1회 면담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이었으며 찾집, 학원상담실, 학교 휴게실, 식당에서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 따라 2명의 연구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 개방적 질문을 실시하였다. 참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진술한 답변과 명확한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반복질문이 이루어졌고, 면담 시 사용한 첫 개방형 질문은 “이혼 후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연구자의 이혼여성에 대한 보편적인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참여자 스스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참여자의 얼굴표정과 신체적 언어를 면담일지에 기록하였다. 참여자가 경험을 진술하는 동안 연구자의 다른 의견이나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면담내용은 연구보조원이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 필사하였다. 필사본을 확인한 후 수정하였고, 수정한 자료는 원자료로 이용하였다.

5. 연구자의 훈련과 준비

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대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고, 박사과정 수학 당시 질적 연구방법론 교과목을 15주 동안 45시간 이상 이수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Giorgi[16]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하였고, 면담내용의 필사본을 반복하여 읽었다.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과 관련성이 높은 의미있는 진술문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진술을 통해 추상적인 형태의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후 참여자의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로 분류하여 주제모음을 구성하였다.

7. 연구의 타당도와 진실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도는 Lincoln과 Guba[18]가 제시한 질적 연구 평가기준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해석하고자 면담 즉시, 자료의 내용을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본질적 의미를 추출하여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와 연배에 이혼한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들에게 연구결과를 읽게 하였을 때 충분히 공감한 것으로 보여 본 연구결과에 대한 적용성(applicability)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 심층면담 방법, 면담과정 및 자료수집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여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의미와 본질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편견을 배제하고 판단중지를 유지하여 중립성(neutrality)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에 대해 참여자들로부터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6.5세이었고 종교는 기독교 1명, 불교 4명, 무교 1명이었다. 직업은 의사 1명, 학원 원장 2명, 공무원 1명, 초등학교 교사 2명이었고, 학력은 모두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고학력자이었다. 한 달 수입은 300만원 미만이 1명, 300~400만원 이 2명, 500~700만원 미만이 1명, 700만원 이상이 2명으로 비교적 고소득층이었으며 자녀는 1명 이상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이혼한 기간은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 당시 2년, 8년, 9년, 15년, 16년, 17년이었고 남편과 결혼생활 유지 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대 14년이었다. 6명의 참여자들 모두 이혼 후 친정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대부분 친정어머니가 자녀들의 양육을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6)

No	Age (year)	Level of education	Occupation	Children's age (year)	Monthly income (10,000 won)	Religion
1	47	Bachelor	Doctor	Daughter 15 Daughter 16	800 and above	Buddhism
2	41	Master	President of academy	Son 18 Son 19	700 and above	None
3	41	Master	General affairs manager	Daughter 11	250 and above	Buddhism
4	58	Master	Elementary teacher	Son 24 Daughter 22	350 and above	Christianity
5	48	Master	President of academy	Son 19 Daughter 16	500 and above	Buddhism
6	44	Bachelor	Elementary teacher	Son 14	350 and above	Buddhism

담당하였다.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주요 진술은 261개이었고, 15개의 주제의미로 구성되었다. 주제는 5개로 ‘평범한 삶에서 벗어난 부끄러운 여자’, ‘복 없는 여자의 운명’, ‘소녀의 설레는 마음’, ‘본능적인 성 욕구를 억누름’, ‘가장으로서의 엄마’로 도출되었다(Table 2).

주제 1. 평범한 삶에서 벗어난 부끄러운 여자

이 주제는 서서히 변하는 참여자 주변의 지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참여자 자신들이 경험하게 되는 내적인 갈등을 나타냈다. 이혼 후 ‘이혼녀’라는 타이틀에 의한 심리적 좌절감이 포함되었다.

1) 죄인이 되어버린 나

모든 참여자들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부터 내키지 않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담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여자’로서 자신들을 생각하였다. 이혼에 대한 죄의식과 무척 작아진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말하였다. 한때는 평범한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당당한 존재였으나 이혼 후 그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의 잘못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마치 절 죄인 취급하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져서 힘들었어요. 죄인! 그래 남편과 이혼한 것이 내 죄?... 요즘 한 집 안에 한 명쯤은 이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 외로 남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참여자 2)

끼리끼리라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더군요. 골프치고 같이 놀았던 친구들,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불편해서요.(참여자 5)

이혼 후 1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자신감도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고, 결국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아요.(참여자 6)

2) 반갑지 않은 손님

모든 참여자들은 이혼 전에 잘 알고 지내던 친구나 동료들과의 만남에서조차 뭔가 모를 경계와 꺼려하는 듯한 그들의 눈빛이 신경 쓰여 지인들과의 만남을 회피하였다. 참여자 중 한 명은 친한 친구 집에 들러 이야기하는 중 그 친구의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으레 참여자를 대하는 친구의 태도가 이전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에 대한 경계, “이혼녀”라는 타이틀, 혹시 친구의 남편을 뺏을 것 같은 나쁜 여자의 존재로 대하는 듯 하여 자신이 친구가 아닌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 하였다.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무슨 자기 남편을 꼬신다고 생각하는지 인사도 대충 시키고 남편 보고 방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어이가 진짜 없더군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아니, 맞아요!(참여자 4)

제가 노처녀인 줄 알고 소개팅을 주선하겠다고 선생님이 분이 계셨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깐. 제가 이혼했다고 말했는데, 그 이후로 소개팅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그 때 전 느꼈어요. 아직도 이혼녀가 낙인이구나. 새롭게

Table 2. Theme Clusters

Meaning of themes	Themes
The one who became a sinner Unwelcome guest My lonely life that my husband left me	A woman considering herself to be ashamed that she hasn't lived an ordinary life
A daughter's destiny inherited from her mother's Painful memories of violence practiced by her father A judgment that she has no husband	The destiny of a woman not having a fortune
The one in an album is me who was loved Having a new habit of recollecting old memories I am a heroine only when watching Korean dramas	An exhilarated mood like a teenage girl's
Exhausting herself by volunteering too much Suppressing sexual energy through continuous household chores Sexual sublimation through doing 108 bows Social Service activities related to majors in college	Suppressing an instinctive desire of sex
Shift into the breadwinner mom A mother as a strong protector	A being a mother as a woman head of household

시작하려는 제 인생에 찬물을 붓더군요.(참여자 6)

3) 남겨진 외톨이 인생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혼 후 주위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하면서 서서히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참여자 중 한 명은 남편의 도박으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 마다 두려움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피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길을 가다가 남편을 동반한 이웃 여자들을 볼 때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것을 느꼈고, 자신들의 고통이 이혼 후 남편들이 남겨준 상처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 아빠 물어보는 것도 불편하고, 또 이혼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더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여타의 모임에 안가게 되었죠.(참여자 3)

혼자 있을 때 제일 서러운 건 제가 많이 아플 때죠. 그 거죽 같은 인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리라는 생각은 진짜 요만큼도 안했는데. 남편도 친구도 다 남이예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어 버린 사람이라고.(참여자 5)

그냥 들뜬에 매서운 바람을 혼자 맞고 서 있는 기분이예요.(참여자 6)

주제 2. 복 없는 여자의 운명

참여자들은 남편 복 없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그 복이 돌아오겠냐며 자신들의 이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참여자 중 한 명은 자신의 엄마도 친정아버지와 헤어지고, 참여자 본인도 남편과 이혼한 상황을 보면, 엄마의 운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다며 체념의 말을 되풀이하였다.

1) 엄마운명이 딸에게 대물림되는 염려

참여자들은 이혼 후 '낯설음', '외로움', '고독감', '좌절감', '가엾음' 등을 안고 사는 자신들의 삶이 어딘가 모르게 친정엄마를 꼭 닮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친정엄마와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친정엄마의 잘못도 자신의 잘못도 아닌, 그냥 자기들만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남편과의 헤어짐 역시,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바람과 희망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친정엄마 운명이 딸의 운명이라고 말하죠. 일찌감치 전 남편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요. 그게 속이 훨씬 편하죠. 저는 남자랑 관계를 안해도 별 문제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안하고 살 수 있으니까. 남편 복 없는 운명을 어찌겠어요? 바람이 있다면 내 딸이 그래도 내 운명을 안 닮았으면, 3대나 대물림하면 되겠어요?(참여자 1)

2) 아버지라는 이름의 폭력에 대한 아픈 기억

참여자들 중 몇몇은 어렸을 적 겪었던 계부의 폭력과 친아버

지의 폭언으로부터 아픈 기억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 여겨져 재혼을 꺼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과거의 아픈 기억은 중년의 나이가 된 지금까지 고스란히 참여자들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저희 친정엄마도 외롭게 생활 하셨어요. 새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분도 술만 드시면 고함을 지르고, 엄마를 때렸죠. 옆 건물에서 고래고기 파는 아저씨가 친정 엄마한테 너무 잘 해주시고, 다정하게 대해 주셔서 합쳤더니 글썽, 술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엄마와 저희들을 괴롭혔죠. 우리 죽은 아빠랑 막상막하였어요.(참여자 1)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할런지...(참여자 3)

3) 아버지의 존재로만 남아있는 남편

모든 참여자들은 남편 없는 자신들의 상황이 이젠 여자로서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아이들에게엔 여전히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이혼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지만 우리 애아빠가 있어요. 어떻게 추억할지 딱 염려가 되지만... 솔직히 알고 보면 예전에도 없는 것이나 똑같았어요. 한국 최고의 대단한 허수아비!(참여자 3)

전 판 여자들처럼 얼굴이 예쁘지도 그렇다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닌데, 누가 절 좋아하겠어요? 전 그냥 이렇게 딸 하나 키우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 최대의 목표예요. 판 여자들처럼 그렇게 가정 가지고 살 욕심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괜찮은 아버지로 기억됐으며 좋겠는데 나중에 아버지 없는 아이로서 어찌될는지...(참여자 6)

주제 3. 소녀의 설레는 마음

참여자들 중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 앨범을 꺼내 옛 추억에 잠기는 버릇이 생겼다. 가끔 이혼 전 남편에게 받았던 버리지 못한 연애편지를 볼 때면, 씁쓸한 기분이 들다가도 다시 학창 시절에 찍었던 사진첩을 보면서 소녀시절의 설레임을 느끼고 있었다.

1) 앨범 속 나는 사랑 받았던 존재였음

모든 참여자들은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 짝사랑, 순수함, 행복, 부끄러움, 수줍음 등, 앨범 속 사랑 받았던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혼여성 자신이었다. 여전히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은 '사랑 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낙인 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혼이라는 단어의 내면에는 이미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존재'라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고시절 2학년 때 동네 오빠가 있었어요. 전 도망가기 바빴고, 오빠는 저를 많이 따라다녔죠. 한번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후 얼굴을 봤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사실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부끄러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참여자 2)

2) 옛 추억을 되새기는 버릇이 생김

옛 추억을 되새기는 버릇은 참여자들의 삶에 원동력을 주는 상큼한 에너지와 같은 습관으로 여겨졌다. 옛 추억 속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회상은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미래를 예견하는 듯이 보였다.

지금 제 상황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돈도 이 정도 별면 되고, 두 아이들이 내 곁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사실 큰 걱정은 없어요. 단지 새로 생긴 버릇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앨범을 꺼내 옛날에 행복했던 추억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그냥 좋더라고요.(참여자 2)

3) 드라마 보는 순간만은 내가 여주인공임

참여자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상대 여배우가 마치 자신인 양 들뜬 마음으로 드라마 시청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 주인공이 등장할 때면 심장이 멈춰버릴 정도의 떨림과 드라마가 끝난 후엔 다음 주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드라마 속 행복한 여자 주인공은 바로 그들 자신들이었다.

최근 드라마 '주군의 태양'이나 '상속자'를 볼 때면, 소지섭이나 이민호가 너무나 좋아요. 막 떨리고 내가 여주인공이 된 것 같고 그래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이 너무 행복해요.(참여자 4)

드라마는 제게 유일한 탈출구라고 할까요? 저희 딸이 자기 보고는 드라마 보지 말라고 해놓고, 엄마는 드라마

에 나오는 남자한테 빠져 헤어날 못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놀려요.(참여자 5)

주제 4. 본능적인 성 욕구를 억누름

참여자들은 본능적인 성에 대한 성 욕구를 억누르고 있었다. 성에 대해 무관심 한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듯 보였고, 일부러 자신의 종교와 전공 관련 봉사활동 및 집안 일로 몸을 지치게 만들거나 시간을 쪼개어 쓰고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의 삶을 위해선 자신들의 성적 본능도 자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기고 있었다.

1) 봉사활동으로 몸을 지치게 함

참여자들 중 한 명은 이혼 전엔 교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가장 큰 의지가 되는 것이 봉사활동이라 말하였다. 힘든 교회의 봉사활동은 몸을 지치게 하는 대신 힘들었던 과거의 아픈 일들을 잊게 해 주었고, 이제는 혼자이어서 외롭거나 본능적인 성 욕구를 느낄 때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혼 당시 불면증으로 힘든 긴 밤 시간을 보냈던 것이 스스로 믿어지지 않은 듯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서서히 지워가고 있었다.

저는 교회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 주중 할 것 없이 일이 있으면 가서 활동하죠. 그러니 고단해서 머리만 방바닥에 눕으면 잠이 들어요. 다른 여자들은 그 시간에 남편과 이야기하거나 애정을 나누겠지만, 밤에 그러니깐 가끔 여자로서 성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절 보세요. 제 표정 밝잖아요.(참여자 4)

저는 주말에는 집에 없어요. 요즘 00근처에 있는 절에 벽화 그려주는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휴일은 늘 밖으로 돌아 다녀요. 그러다 보면 성 욕구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죠.(참여자 3)

대학 후배들과는 자주 연락해요. 후배들 방학 때, 전 4일정도 휴가를 낼 수 있어서 농촌 의료봉사에 참가하죠. 짧지만 가치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번은 복지관과 연계된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의료봉사를 해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본능적인 성욕구가 생기겠어요?(참여자 1)

2) 성욕을 전환시키기 위한 몸부림

모든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무척이나 바쁜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 것이었다. 자신들에게 잠시라도 쉬는 틈을 쥐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게 나타났다. 참여자 중 몇몇은 자신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성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기 위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하였다. 종교가 불교인 한 참여자는 성에 대한 욕구가 욕심이라 여겼고, 참기 힘들 땐 인근 절에 가서 108배로 대신하였다. 참여자들 중 한 명은 인간의 성적 본능도 누를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마력을 갖고 있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너무 생각이 간절해 질 때는 나도 모르게 퇴근 후 108배를 합니다. 그러면 지쳐 잠들어요. 아침이 되면 몸과 마음이 무척 개운해집니다. 소나기 온 후 맑게 갠 하늘처럼요.(참여자 3)

저도 여자인데, 왜 생각이 없겠어요?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집에서 계속 청소를 해요. 정말 열심히 하죠. 닦고 또 닦고. 저 보고 우리 애가 어느 날 비파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청소하는 물고기 이름이 비파라면서. 내 속도 모르고...(참여자 4)

주제 5. 가장으로서의 엄마

참여자들은 앞으로의 인생 역정은 자신들을 위한 삶이 아닌 자녀들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여겼다. 남편 대신 가장으로서의 부담감과 여자가 아닌 엄마로서의 책임감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마음의 무게가 전달되었다.

1) 생계부양자 역할로의 전환

‘한부모’라는 굴레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이유로 심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이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은 이혼 후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계부양자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모든 참여자들이 직장을 갖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고, 자녀들과 살아감에 있어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실에 맞서 당당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잔잔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전 이제 여자가 아니라 엄마로서 당당해지고 싶어요. 미래에 대해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깐 제가 힘을 내야죠. 아이들에게 예전보다 더 잘 해주고 싶어요. 아빠의 빈자리를 저의 노력으로 많이 채워주고 싶어요.(참여자 2)

삶을 즐길 여유가 없어요. 옛날 잘 살던 거 생각하면 뭐

합니까? 과거인데, 이혼을 했지만 긍정적으로 씩씩하게 잘 살아야지, 오직 이런 생각뿐입니다.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하구요.(참여자 5)

2) 엄마는 바로 강한 보호자

참여자들은 이혼 후 자신들이 엄마라는 강한 존재로서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모노드라마에서 한 명의 배우가 여러 배우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듯이, 자신들은 엄마이자 보호자이며, 양육자로서 강한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전 아이들만 있으면 돼요. 저의 목표는 오직 아이들입니다. 이젠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는 그래서 보호자다. 나는 이제 보호자다. 이렇게 생각해요.(참여자 2)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은 261개의 주요 진술을 통해 15개의 주제 의미와 5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에 따라 기존문헌을 비교하여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에 대한 본질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이혼 후 변화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데, 지인들로부터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인식되는 것에 힘들어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혼 한 것이 아닌데 마치 죄인이 되어버린 모습에 초라함을 느꼈다.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중심의미는 ‘평범한 삶에서 벗어난 부끄러운 여자’이었다. 오늘날 서구의 개방적인 의식 변화는 사회문화 영역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소외감은 본 연구참여자가 아무리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는 저학력의 비전문직 이혼 중년여성을 참여자로 한 연구결과[19]와 유사하였으며, 여전히 ‘이혼녀’라는 부정적인 사회편견이 이들의 삶의 명에 남아있었다. 따라서 고학력 전문직 이혼 중년여성을 위한 자존감 회복 및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중심의미는 ‘복 없는 여자의 운명’이었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친정 엄마의 이혼이 자신에게 대물림되었고, 이혼한 자신의 인생도 자녀들에게 대물려질 것이라는 운명론적 인생관이 드러났다. 특히 ‘복 없는 여자의 운명’으로 도출된 주제를 분석해 보면, 자신들의 삶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측면이기 보다는 남편이라는 존재에 의해 좌우되는 의존적인 측면이 강하

게 드러났는데, 이는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과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특성이 본 연구의 고학력 전문직 이혼 중년여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에서 개인이 가족 혹은 배우자의 희생보다 독자적인 자아성취와 자아발달을 중요시하는 것을 개인화라 말한다[20].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남편에게만 의지하고,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올바른 개인화[21]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혼이나 재혼 후 구성된 가족을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이고 긍정적인 사고[22]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중심의미는 ‘소녀의 설레는 마음’이었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양육자 및 보호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으나 과거에 자신들도 누군가로부터 사랑 받았던 존재였고, 더불어 여자로서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가 온전히 드러났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이성과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을 배제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앨범 속 추억을 되새겨 보거나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에 대한 이혼 중년여성의 관심표명을 두고 볼 때, 사랑의 기회를 다시 찾고자 하는 설레는 마음이 내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혼 후 변화된 삶 속에서 숨겨진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자신들이 가진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조모임[23]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중심의미는 이혼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한 ‘본능적인 성 욕구를 억누름’이었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재혼을 선택하기 보다는 자녀를 부양하는 삶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과중한 봉사활동, 힘든 집안 일, 절을 찾아가 108배를 통해 몸을 지치게 하여 수면을 취함으로써 자신들의 본능적인 성욕구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참여자들은 성실함과 강한 책임감을 기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나 반면에 본능적인 성욕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척 안타까웠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써 오로지 본능을 외면하는 삶만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자신을 위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여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고학력 전문직을 가진 이혼 중년여성은 전문가적 역량과 기량을 살릴 기회가 많으며, 본능적인 성욕구의 잔잔한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개발과 봉사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중심의미는 ‘가장으로서의 엄마’이었다. Kim[20]과 Song[24]의 연구는 참여자들이 힘든 저소득층의 이혼 중년여

성으로 자신의 빈곤한 삶이 부담감으로 다가와 현실을 도피하거나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직장을 가지려고 온갖 발버둥 치며 노력해 보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힘든 구직난의 현실에 부딪혔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은 충동적인 자살과 같은 극단의 부정적인 정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중년여성으로서 자아정체성과 자존감이 저하되었을 뿐 경제적 측면에선 생계부양자로서 당당함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계부양자와 어머니의 이중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고충으로 나타난 Jeon과 Cho[3]의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는데, 청소년의 자녀를 둔 40대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혼 중년여성인 본 연구참여자에게 비해 Cho 등[5]의 연구참여자들은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30대 젊은 이혼여성이므로 자녀양육과 생계에 있어 부담감이 더욱 컸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들은 이혼을 겪은 아픔과 나약함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자신들의 내면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 이는 이혼 중년여성에게 심각한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보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그 외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은 여자가 아닌 강한 엄마로서 정체성이 확고하였고, 이혼 후 혼자 힘으로 험난한 난관을 극복하고 자녀를 위한 강한 엄마의 존재로 정립되어 있었다. 고학력 전문직의 이혼 중년여성인 본 연구참여자들은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관념과 이혼에 대한 죄책감 및 부끄러움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나 자신들의 삶보다 자녀들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애가 더 강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이혼을 경험한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심층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갈 수 있는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결론

본 연구는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61개의 주요 진술, 15개의 주제 의미 및 5개의 주제인 ‘평범한 삶에서 벗어난 부끄러운 여자’, ‘복 없는 여자의 운명’, ‘소녀의 설레는 마음’, ‘본능적인 성 욕구를 억누름’, ‘가장으로서의 엄마’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참여자가 아무리 고학력 전문직의 이혼 중년여성들이지만 ‘이혼’이라는 타 이들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었으며, 자녀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인해 이혼 후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삶과 사랑에 대해선 인식함이 드러났다. 그러나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으로서 자신들의 역량을 자원봉사 및 사회기여를 위해 힘쓰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이혼 후 변화된 삶을 통해 사랑이라는 존재를 미움과 아픔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강한 엄마로서 확고한 정체성에 대한 희망과 전문직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심리적, 사회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힘든 삶을 극복하려는 그들만의 노력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이들의 자녀들이 경험한 삶의 과정 및 역할과 관련된 탐색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에서 이혼과 비이혼 대상자를 비교 분석하여 이들이 가진 긍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Kang JH. Public perception on gender rol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Korean women. *The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2009;19(2):173-198.
2. Pyun SJ. A study on effect of group art therapy for life satisfaction and elevation of personal relations of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010;24(1):307-325.
3. Jeon BY, Cho HS. Divorced single mothers' life histories and postdivorce adap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13;18(3):179-206.
4. Kim MS. A sociological examination on single women groups.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1;33(2):21-38.
5. Cho IS, Ahn SH, Kim SY, Park YS, Kim HW, Lee SO, et al. Depression of married and employed women based on social-role theor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2;42(4):496-507.
6. Statistics Korea. Statistics for the Lone parents family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3 [cited 2015 January 9].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quick_05
7. Sung JH. Development of group program for postdivorce adjustment. *Korean Academy of Family Social Work*. 2002;9:31-53.
8. Love RA, Walker TB. Divorce on behalf of an incompetent person by a guardian. *American Journal of Family Law*. 2015;28(4):171-175.
9. Ko SH, Park EA, Kim MA. The typology of gender role identity

- in middle-aged women using Q methodolog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6):449-456.
10. Wang SS, Ryu KH. A study on the types of unmarried single women based on their subjective perceptions on single lif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3;22(6):615-631.
 11. Lee KH, Han JH. A study on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middle-aged women divorce proceedings the defenda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5;16(1):353-371.
 12. Cho KS. Outcome of participants on HRD program by highly educated middle-aged women: A case of Gangnam-gu women's development center program participants[master's thesis]. Seoul: Soongsil University; 2009.
 13. Cohen O, Leichtentritt RD, Volpin N. Divorced mothers' self-perception of their divorce-related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Child & Family Social Work*. 2014; 19(1):34-43.
 14. Thompson RG, Alonzo D, Hasin DS. Parental divorce, maternal-paternal alcohol problems, and adult offspring lifetime alcohol dependence.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in the Addictions*. 2013;13(3):295-308.
 15. Shin KL, Jo MY, An JH.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4. 557 p.
 16. Giorgi A.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1997; 28(2):235-260.
 17. Morse JM. Constructing qualitatively derived theory: Concept construction and concept typologie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04;14(10):1387-1395.
 18. Lincoln YS, Guba EG.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85. p. 301-331.
 19. Park YM, Chang YJ. A phenomenological study of single mothers who divorce due to family violence. *Journal of Psychotherapy*. 2009;9(1):1-25.
 20. Kim CK. A phenomenological study on psychological experience appearances of middle-aged wom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2011;50(3): 25-51.
 21. Kim HK. Failure of the patrilineal stem family system?: Familialism and individualization among the generation of economic crisis of Korea in 1998.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013;47(2):101-141.
 22. Choi KR. Psycho-social grounds of divorce and counselling implicat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5;6(3): 1025-1040.
 23. Lee SY. An analysis of differential non-marriage and divorce proportions by educational level in Korea: 1995-2010.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013;36(4):1-24.
 24. Song U. The study on process of adjustment after divorce of divorced women in 40's.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2013;20:30-60.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Several studies have been found on difficulties experienced by divorced women. However, there was lack of understanding on middle-aged divorced women with higher education and professional lives.

■ What this paper adds?

This study provides deep understanding of middle-aged divorced women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and professional lives who experienced difficult times for overcoming their problem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ere is a need to consider middle-aged divorced women with higher education and professional lives, that could help them to create opportunities to contribute to society.